

전남도, 장애아동 재활의료센터 건립할 시·군 공모

국책사업으로 올해 4개 시·도 선정해

전남지역 2개 시·군 선정해 공모 참여

전남도는 정부 국책사업인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 참여 시·군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민간에

서 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걸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 충북에 2개소를 선정했고, 올해는 미중족 의료수요, 지리

적인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센터 설립이 먼저 필요한 4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1개소를 선정한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건립 참여 신청을 받아 2개 시·군 이상 응모시 선정 위원회 평가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시·군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추

진해 왔다. 어린이 재활환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연고지 내 지속적인 의료 제공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전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총사업비는 72억원이다. 20병상 이상 규모로 재활의학과를 비롯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열전기치료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손선미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난해 기준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며 “지역 내 장애아동의 꿈인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순천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순천시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다양함의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간소하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깨끗하게 생활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동안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 복지 유공자 11명에게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의 날 축하 인사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퍼포먼스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순천시는 장애인을 위해 연령·성별·장

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인 UD블 설치, 시민로 개선, 상가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지원체계 개선에 노력하여 2020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 인식 부족 등 장애인 복지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 어려움은 있으나 장애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함평군자원봉사자, 손수 제작한 사랑나눔 키트 전달

비즈 마스크 스트랩·마스크·손소독제·물티슈 등으로 구성

함평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군 자원봉사단체 회원 50여 명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사랑 나눔 키트'를 9개 읍·면 독거노인 80가구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 나눔 키트는 코로나19 예방 물품인 비즈 마스크 스트랩, 항균작용 효과가 있는 아로마오일 수제비누,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등으로 구성됐다. 마스크 스트랩은 마스크 분실방지와 마

스크 소지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함평군 캐네이션 봉사회(회장 송영희)와 나르다 예술단봉사회(회장 박행남)가 제작한 키트는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임숙자)가 대상자 가정별로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는 사랑 나눔 키트를 전달하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코로



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주거환경 정비

도배·장판 자원봉사에 나서...가스레인지 등 생활용품 지원도

영암군 미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만동)는 최근 관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내부 환경정비 및 도배·장판 자원봉사를 추진하였다. 미암면 협의체 위원들은 환경정비 자원봉사를 추진하기 위해 오전 2차 정기회의를 가졌으며, 10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미암면 주민복지팀, 노인일

자리 사업 참여자,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자원봉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가구는 미암면 복지팀에서 발굴한 취약가구로 음식물, 생활 쓰레기 등이 집안에 쌓여있어 악취가 풍기고, 곳곳에 곰팡이 등이 피어있는 참혹한 주거환경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고있는 상태였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자가 한시라도 빨리 안락하고 청결한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쓰레기를 밖으로 꺼내서 분리수거를 하고 직접 도배·장판을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을 깨끗이 정비했다. 이후 해당 가구에는 협의체 및 복지팀에서 가스레인지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

원 및 지속적인 안부확인 등을 통해 청결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조만동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이렇게 구슬땀을 흘림으로써 어르신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앞으로도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협의체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만테 미암면장은 “이번에 도움을 받으신 어르신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내부 환경정비 및 도배·장판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암면에서도 협의체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